제 2편 초기백제 시기

- <삼국지> 동이전에는 마한, 진한, 변한이 보임. 245년 진한 8국 교섭 창구를 낙랑군에서 대방군으로 옮겨서 중국 근원과 삼한 사이에 전쟁 사실 기록.
- <진서>에는 마한과 진한이 서진에 사실보낸 기록→마한, 진한, 변한이 3세기 말까지 존재
- <삼국사기> 초기 기록 백제. 신라 기사는 실제로는 마한연맹체와 진한연맹체에 대한 사실

3장. 낙랑·대방군과의 교섭과 교류

1절. 낙랑군과의 관계
- 낙랑군: 서기전 108년 한우제가 위안쟁연 제양시키고 설치한 한사군 중 하나. ~313년.
- 초기백제와 낙랑군의 교섭은 <삼국사기> 백제본기 초기 기록 중 온조왕대 집중: 실제로는 한강 이북 부족국가들의 낙랑군과의 충돌·교섭에 대한 백제 중심 역사서술
- 온조왕대 낙랑 관련 기사
  - 1기: 전국 후 개로왕(128–166)대까지: 전국 초기 낙랑군과의 충돌, 회피, 우호
  - 2기: 초고왕(166–214)에서 사반왕(234)까지: 백제가 한강 중류 지역연맹체 맹주국으로 성장, 한강 이북으로 영토 확장하면서 낙랑군과 긴장, 군사충돌

2절. 낙랑·대방군과의 관계
1. 공손씨 세력의 대방군 설치와 조위 시기 고려영 전투
- 2세기 후반 후한의 정치 부활과 낙랑군의 위기→어동 공손씨 세력의 낙랑군 지배, 대방군 설치
- 공손씨 폐망시기 조위 낙랑군, 대방군 평정(237–239)
- 고려영 전투(245년 마한–낙랑,대방군 전쟁): "부총사 오립은 진한 12국 가운데 8국을 분할하여 교섭창구를 낙랑군으로 바꾸도록 하였다?"<br>주요국은 (1) 목지국 (2) 백제국 (3) 신분고국
2. 서진 시기 낙랑군·대방군과의 외교와 갈등
- 245년 전투에서 마한은 대방군에 패배. 마한 주도국가 목적국에 의해 백제가 목지국 열망시키고 마한연맹체 맹주국 통일(고이왕)
- 마한은 3세기 후반 조위 후손국인 진(물, 265-)에 빈번히 사실 보낸: 마한주(마한주) 이름으로 백제 고이왕: 억지적 부족국가 연맹체
- 백제 중심 마한이 서진과 교섭하면서 마한–낙랑·대방군과의 우호 관계로 변화
  * 고구려 견해는 백제 도움 필요: 대방군 백제 갤래왕과 혼인
  * 혼인 후 백제는 고구려가 대방 공격. 대방군 요구대로 응원 보낼→고구려와 갈등 유발
- 그러나 백제의 성장에 위협 느낀 낙랑군/대방군은 백제 공격. 갤래왕 죽(Ita, 298년)
  * 백제와 낙랑·대방군 관계 악화→313–314년 고구려가 낙랑·대방군 멸망시. 백제 지존X